



2012년 10월 23일(화)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미 재정절벽(Fiscal Cliffs)시행시 재정적자는 큰 폭 감소 예상
- 2) 미국 기업 4/4분기 실적 절벽 우려
- 3) NBER, 고교시절 인기도 높은 학생이 추후 인금도 높다는 보고서 발표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IMF, 내년 글로벌 경제 아시아 주도 전망
- 2) 홍콩, 화폐절상 억제 위해 또다시 시장개입
- 3) 스페인,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
- 4) 세계은행, 대한민국 <기업하기 좋은 나라> 8위 지정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FT, 프론티어마켓(Frontier Market) 주목할 것 조언
- 2) NBC,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추락한 8대 기업 선정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미 재정절벽(Fiscal Cliffs)시행시 재정적자는 큰 폭 감소 예상

-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뱅크오브아메리카(BoA)는 미국이 재정절벽이 시행될 경우 세수가 늘어나 7,2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
  - 적자 감축 예상액은 세금 인상분 1,800억 달러,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분 1,200억 달러,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분 1,100억 달러, 세제 혜택 및 기타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세금 증가분 1,600억 달러 등이 포함됨
-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단기적으로 적자 규모를 급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미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국내총생산(GDP)이 4.6%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

### 2) 미국 기업 4/4분기 실적 절벽 우려

- 지난 9월22일(현지시간) 골드만삭스는 올 4/4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한 S&P500 20개 기업 중 18개가 실적을 부정적으로 예상
  - 비록 20개 기업에 한정된 결과지만 설문조사 기업 가운데 90%가 다음 분기 실적을 어둡게 내다본 것은 매우 이례적
- 골드만삭스는 가중되는 유럽 위기, 중국 경기 둔화, 미국 내수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
  - 골드만삭스는 현재까지 나온 S&P500 기업 실적이 14% 가량 감소, 향후에도 부정적인 실적 전망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

### 3) NBER, 고교시절 인기도 높은 학생이 추후 임금도 높다는 보고서 발표

-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전미경제조사국(NBER)은 고교시절 인기도 상위 20% 학생들이 졸업 40년 뒤에는 하위 20% 학생들에 비해 임금이 10%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
  - 한편 인기도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아니며 집단에 잘 적응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고등학교 시절 게임 방법을 터득하면서 인기를 쌓은

이들은 훗날 직장에 들어가서도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, 이것이 높은 임금의 바탕이 된다고 평가

○ 또한 우정을 형성하는 능력이 일련의 요인에 좌우된다고 설명

- 어린 시절 따뜻한 가족간의 유대가 있던 학생들,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, 영리한 학생들이 인기가 높았던 반면, 집안의 경제 형편은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

○ 보고서는 학교가 순수 학문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학생들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,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내 통합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IMF, 내년 글로벌 경제 아시아 주도 전망

○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IMF는 서울에서 개최된 <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-IMF 공동 콘퍼런스> 발표문에서 2013년 아시아는 세계 평균보다 2%p 이상 높은 5.9%의 성장률을 전망

○ IMF는 선진국으로의 수출 증가를 주된 성장 요인으로 지목

- 중국 8.2%, 인도 6.0%, 동남아국가연합(ASEAN) 5.5% 등 올해보다 0.4 ~ 1.1%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
○ 다만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하거나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아시아 성장률은 4%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

### 2) 홍콩, 화폐절상 억제 위해 또다시 시장개입

○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(HKMA)이 자국 화폐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2차례 시장에 개입했다고 보도

- 이날 홍콩 당국은 홍콩달러 절상을 막기 위해 트레이드 범위 상한선까지 미국 달러를 거래한 뒤 홍콩달러를 매도한바 있음

- HKMA는 39억1,400만 홍콩달러(5억500만 달러)를 외환시장에서 매도

o HKMA는 지난 19일에도 뉴욕 거래소에서 46억7,000만 홍콩달러를 매입하며 2009년 후 첫 시장 개입을 단행한바 있음

### 3) 스페인,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

o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스페인 중앙은행은 3/4분기중 스페인 국내총생산(GDP)은 전분기대비 0.4% 감소하며 2/4분기와 같은 크기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

-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-0.7% 보다는 적은 위축세로 지난 주 유럽연합(EU) 정상회의에서 스페인 추가 구제에 대한 합의가 실패한 후 스페인 국채 가격은 다시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음

o 스페인 경제는 실업률이 25%에 육박할 정도로 침체가 심각해 내수가 위축되고 세수가 줄어들며 정부 재정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

### 4) 세계은행, 대한민국 <기업하기 좋은 나라> 8위 지정

o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세계은행은 각국 기업 환경의 편의성을 조사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 <2013 두잉 비즈니스(Doing Business)>를 발표

- 주요 20개국(G20) 중에서는 미국이 4위, 영국 7위 순으로 나타남

o 한편 한국은 지난해 9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

- 한국은 캐나다(17위), 독일(20위), 프랑스(34위), 러시아(112위) 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거둠

-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0위 안에 오른 것은 10개 평가 부문 중 투자자 보호(79위→49위), 세금 납부(41위→30위), 전기연결(3위) 등에서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

- 반면 재산권 등록(72위→75위), 자금조달(9위→12위), 창업(22위→24위), 건축허가 처리(24위→26위), 지급불능 해결(13위→14위) 등 부문의 순위는 하락

- 또한 한국의 계약이행과 대외무역은 전년과 같은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
- o 한편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을 하기 편한 나라 순위에서 7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한 반면, 중앙아프리카공화국(185위)은 최악의 기업환경을 가진 나라로 선정됨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 1) FT, 프론티어마켓(Frontier Market)<sup>1)</sup> 주목할 것 조언

- o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프론티어 마켓 가운데 나이지리아, 가나, 카타르, 베트남이 떠오르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
  - 이머징 마켓 전문가들은 많은 프론티어 마켓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, 가치, 연관성 등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경제적 기회가 있다고 평가
  - 특히 나이지리아, 가나, 카타르, 베트남 등은 20년 전 BRICS 국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
- o 한편, FT는 프론티어 마켓 투자 시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
  - 이들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며, 유동성도 그다지 풍부한 편이 아니기 때문

### 2) NBC,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추락한 8대 기업 선정

- o 지난 10월21일(현지시간) NBC 방송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역사상 최악의 8개 기업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
  - 이들 기업은 한때 각 업계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이었으나, 미래에 대한 전략과 위기관리의 부재, 차세대 기술개발 실패 등으로 인해 다른 기업에 흡수, 합병되거나 폐업한 기업들로 지난 1955년부터 포천500에 포함된 기업 중 100위 안에 10년 이상 있었으나 올해에는 제외된 기업 중 8개를 선정

1) <프론티어 마켓>은 이머징 마켓보다 리스크는 있지만,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중동, 아프리카, 동유럽,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일컫는 말

## (1) 모토로라

- 지난 94년 S&P 500 기업 가운데 23위에 올랐으며, 지난 2006년엔 세계 이동통신기기 시장에서 애플과 세련된 디자인의 레이저(Razr)로 22%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의 우량 기업
- 하지만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 이동통신 부문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구글에 매각

## (2) 리먼브러더스

- 지난 2008년 S&P500 기업 중 37위의 순위에 올라 있던 초대형 금융그룹
- 하지만 2007년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주택담보부증권(MBS)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냈으나 비우량 부동산담보대출(서브프라임모기지론) 사태가 터지면서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
  - 무리한 부채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가 파산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바 있음

## (3) 파이어스톤

- 미 굴지의 타이어 제조사로서 지난 57년엔 S&P500 기업 중 24위를 기록
- 회사 임직원들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형 타이어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고 지난 88년 경쟁사인 브리지스톤으로 인수 합병됨

## (4) 기타

- 이외 디지털 이퀴프먼트, K마트, 아메리칸 모터스, RCA, 코닥 등이 선정되었고, 이들 기업 대부분이 급성장으로 각광을 보였으나, 후속 모델 부재 또는 현실에 맞는 레노베이션 실패로 동종 경쟁사에 인수 합병되거나 폐업을 함